

# 어린이책 들춰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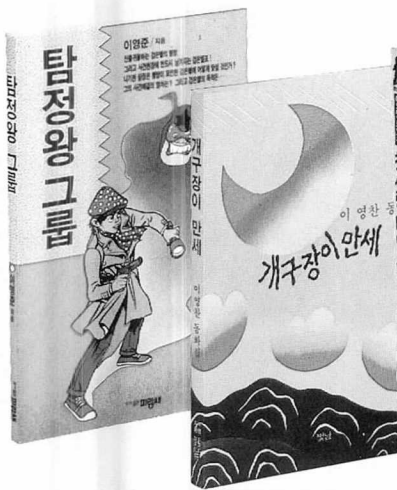
## 탐정왕 그룹

이영준 지음

파랑새 / A5신 / 206면 / 2500원

천하의 악당 검은별은 부하들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하자마자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 검은별은 최신 무기인 야구공 폭탄과 레이저총을 이용하여 은행 금고 털기에 성공하는데, 소년탐정 나기찬은 검은별 일당이 저지른 일임을 눈치채고 치밀한 작전을 짜 끈질긴 추적을 벌인다.

검은별 악당과 소년탐정 나기찬, 이들의 치밀한 두뇌대결은 사건의 흐름을 시종 흥미진진하게 이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나기찬의 활약을 통해 추리력과 논리적 사고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 첫사랑의 비밀일기

허순봉 지음

가나출판사 / A5신 / 222면 / 3000원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의 첫사랑과 짝사랑의 이야기를 묶은 창작동화집.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짝꿍이나 선생님, 동네 여학생을 좋아하며 벌이는 사건들이 재미있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기심을 버릴 줄 알게 됩니다. 나의 기쁨만큼이나 남의 기쁨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어린이들이 다 천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곧 그 마음을 잃고 맙니다. 왜일까요?”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어린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 우리가 기른 버

보리 지음 / 임향한 그림

웅진 / A5 / 24면 / 2000원

모든것을 자기중심으로 파악하는 단계에서 객관적인 세계와 자기가 놓인 위치를 깨우치는 시기로 옮겨가는 만 3~4세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사물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건강한 세계관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된 ‘올챙이 그림책’ 시리즈 중 하나.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위에 오르게 되는지를 농촌어린이의 눈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정성을 들여 기르고 시간을 두고 보살펴야 함을 가르쳐 준다.



## 개구쟁이 여학생

박명희 외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24면 / 2500원

각 동화마다 말괄량이 여자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화 모음. 아동문학가이자 현직 국민학교 선생님들이기도 한 작가 19명이 썼다.

이제까지의 동화들에서 여학생이란 대체로 얌전하고, 여러기만 하던 것과는 달리 이 열아홉편에 걸쳐 등장하는 여학생들은 독특한 개성의 건강하고 밝은 성격들이다. 남자애들보다 힘이 세고 박력넘치는 야산이, 다부진 행동이 돋보이며 물구나무서기를 잘하는 씩씩한 윤정이... 재치와 용기와 사랑이 넘치는 개구장이 여학생들의 신나는 생활이 펼쳐진다.



## 개구장이 만세

이영찬 지음

빛남 / A5신 / 294면 / 3000원

“삼촌, 개구장이 뭐야?” 삼촌은 한동안 눈을 깜빡이더니, “개구장이란, 개하고 구렁이하고 반반씩 닮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야”라며 웃지도 않고 말했다.

정말 뜻밖의 말을 들은 꼬마 국이는 엉터리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방에 들어와 개와 구렁이가 그려진 그림책과 거울을 번갈아가며 보았다. 처음엔 닮은데라곤 찾아볼 수 없더니, 들여다볼수록 점차 닮은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국이는 울음을 참으며 그만 털썩 주저앉았다.

7살난 국이와 그 친구들이 보고 생각하는 ‘세계’가 천진하게 그려져 있다.

## 할머니와 누렁이

김정현 지음

아동문예 / A5신 / 180면 / 2500원

개도독들에게 끌려간 누렁이가 극적으로 탈출하여 성당 마루 밑에서 새끼를 낳고 먹을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부님의 주선으로 외로운 할머니를 만나 행복한 새출발을 하게 된다는 중편분량의 표제동화 「할머니와 누렁이」를 비롯해, 재미를 석자도 제대로 못쓰던 제자를 이해와 사랑으로 가르쳐 훌륭한 선생님이 되길 바라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굴 목걸이」, 그리고 부모없이 외롭게 사는 별이남매에게 베푼 집배원 김씨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그린 「하늘로 보낸 편지」 등 인간애가 넘쳐흐르는 동화 13편이 실려 있다.



## 아기 도깨비의 집

보리 지음 / 박경진 그림

웅진 / A5 / 24면 / 2000원

큰비가 내리서 아기도깨비네 집이 떠내려갔다. 비가 그치자 아기도깨비는 새 집을 찾아 떠난다. 나무가지 위에 까치집이 보여 찾아 올라가나 하마트면 나무 밑으로 떨어질 뻔한다. 다시 길을 가다 커다란 굴을 발견하고 들어가다가 “어흥—” 하는 호랑이소리에 깜짝 놀라 달아난다. 개구리가 사는 연잎 위도, 두더지가 사는 땅속도 다 제 살집이 아닌 것을 확인하던 어느날 아기도깨비는 드디어 낡은 물레방앗간 하나를 발견한다.

아기도깨비에게는 왜 집이 필요하지, 왜 다른 동물들의 집은 알맞지 않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준다. 만 3~4세용.



## 어린이 사기열전

사마천 지음 / 박영선 옮김

현암사 / A5신 / 248면 / 2800원

모두 1백30권에 달하는 중국의 역사기록서 「사기」 중 ‘열전’부분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

이 책에는 중국역사속에 살아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 나라를 호령한 왕, 제후, 장군들에서부터 가난한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들이 나오는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진실하고 올바른가를, 또 각 인물을 통해 그들의 지혜로움과 따뜻한 인간애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충의의 표상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비롯해 ‘노자와 장자’ ‘장이와 진여’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 등 18편이 실려 있다.

